**2023년 1학기 해외연수보고서-(연수준비방법 및 행정)**

2020131129 정채현

+모든 가격과 유로는 2022년 12월~2023년 6월 기준입니다.

1. **연수 준비 방법**

연수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프랑스 학생 비자 절차 및 출국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랑스 학생 비자의 경우 사람이 몰릴 경우 한 달 이상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월 7일 출국 예정이었던 저는 11월 2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는 제가 준비했던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수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안내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팁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여러 블로그 링크 또한 남기겠습니다.

**(1) 여권 재발급/신규 발급**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제때 발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급받는 당시에는 구여권과 신여권 선택 옵션이 있었는데, 구여권 발급이 저렴한 대신 아주 느렸습니다. 여권 번호가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꼭 우선 체크 부탁드립니다.

**(2) 프랑스 학교 가등록(620유로)**

조교님이 설명해주시겠지만, 사이트 회원 가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규학기, 속성학기(방학) 별도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가등록증을 받아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3) 프랑스 학생 비자 발급 준비(1) 캠퍼스 프랑스(333,000원)**

\*준비물: 여권 사진면 스캔본, 행정비용 납부영수증 스캔본,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영문 스캔본(재학/휴학/제적/졸업증명서 중 택1), 프랑스 학교 (가) 등록증

여기에서 가장 애먹는게 프랑스 학교 (가) 등록증이었습니다. 프랑스 행정 처리가 느려서 등록증을 받기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직접 메일을 넣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 또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프랑스에서는 서류 접수 ->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면접은 40분 정도, 그룹으로 진행되었고, 전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어로 해당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준비한 언니는 프랑스어 자기소개도 안 시키신 걸 보니 담당자분에 따라 약간 면접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룬 블로그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abin0709/222409365918>

**(4) 프랑스 학생 비자 발급 준비(2) 비자 신청(50유로; 10원 단위까지 한화로)**

\*준비물: 여권, 여권 사본, 장기 비자 신청서, 증명사진, 캠퍼스 프랑스 도장을 받은 (가) 등록증, 은행 계좌 잔액 증명서(영문), 거주지 증명서

아마도 기숙사 신청 이전에 학생 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애매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고다에서 무료 취소 가능 상품으로 최대 일수로 호텔을 예약한 이후 pdf만 받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고다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가끔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 대사관 면접 일정이 잡히는데, 대사관 면접은 서류를 처리해주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 분한테 면접을 봐서 좋았어요. 또한, 카드 결제가 되는 줄 알고 카드만 챙겨갔다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셨는데 ㅠㅠ 대사관 1층에 우체국 은행이 있어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제 최종 비자 타임라인은

12월 7일 캠퍼스 프랑스 면접

12월 29일 대사관 면접 및 서류 제출

1월 17일 대사관 방문해서 1월 26일 타국 출국 사실 밝힘

1월 18일 새벽 비자 상태창 변경 / 오후 운송장 조회 가능

1월 19일 오전 10시 비자 수령

이었습니다.

저는 12월 중순에 해외여행을 하느라 캠퍼스 프랑스 면접과 대사관 면접 사이에 텀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행 가지 마시고 바로 대사관 면접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출국일 전에 타국 출국 일정이 있다면 대사관 면접 때 미리 말씀해주셔서 빠르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5) 비행기 예약**

개인적으로 왕복 비행기를 끊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는 편도로 두 번 결제했더니 160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으로 결제했습니다.

**(6) 기숙사 신청(보증금 600유로+제반 관리비 175유로)**

이것 또한 조교님이 절차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기숙사별 후기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Saint-Bernard 기숙사**: 제가 묵었던 기숙사입니다. 1인 1실이고 방에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 및 다른 생활 공간을 쉐어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 마주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새로 지어서 매우 깨끗하고, 보안도 좋고, 평지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학교랑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지하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빨래하기 좋습니다. 방에 에어컨도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모두 한국어 지원됩니다.

\*건조기는 무조건 온열 건조로 2시간 정도 돌리세요.. 저는 그걸 몰라서 4개월 동안 젖은 빨래를 손수 방에서 말렸습니다..^^

\*지하에 탁구장, 공용 주방 등 재밌는 시설이 많습니다. 꼭 이용해보세요.

-**Saint-Laurent 기숙사**: 1인 1실이고 방에 개인 화장실이 없으나 개인 세면대는 있습니다. 주방, 화장실, 욕실 및 다른 생활 공간을 쉐어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 친해지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 및 욕실 시설이 약간 열악했고, 지정된 시간 외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방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8)아포스티유 발급 및 번역 공증(2,000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증을 받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외교부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이후 번역 공증을 위해 (1)파리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시거나, (2)프랑스에 가셔서 번역 공증을 받으시거나, (3)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 번역 공증으로 받으시거나 하실 텐데 본인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세유나 다른 지역에도 번역 공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프잘사에 검색해보셔서 번역가님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옹에 계신 김ㅇㅅ 번역가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축에 속하며, 연락 잘 안 보시고, 약속을 어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 유학생 보험(250,000원)**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ADH 주거보험(30유로)**

기숙사 신청 이후 기숙사에서 주거보험을 들라고 할 겁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ADH에서 주거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yunjin7405&logNo=221352689395>

**(11) CVEC 신청**

프랑스 대학생 세금인 CVEC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wjddnwjddn95/222451298721>

<https://blog.naver.com/hi_france/221980687588>

**(12) Ameli**

프랑스의 건강 보험 느낌입니다! 신청하셔서 꺅트비탈카드까지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학생 보험을 들고 가도, 현지 병원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멜리에서 꺅트 비탈 카드까지 발급받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저는 꺅트 비탈 카드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qwreou/221667532510>

**(13) CAF**

가장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프랑스에 도착하시자마자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임시 P 번호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아멜리 신청 후 임시 아멜리 번호나 정식 아멜리 번호를 받은 이후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임시 P 번호는 CAF 진행 과정을 조회할 수 없으나, 아멜리 번호가 있으면 진행 과정 및 담당자 연락이 훨씬 수월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qwreou&logNo=221660635172&isFromSearch=true>